

## 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김정례 · 김선자 · 박종욱\*  
청주교육대학교

###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 who Participated into Liaison Teacher on the Gifted Education

Jeongrye Kim · Sunja Kim · Jongwook Park\*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as liaison teachers in the gifted education organization's different operating styl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thoughts of these teacher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inquiry survey was performed for 74 liaison teach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observational activities in the university annexed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and the dormitory based gifted students education center supported by education of administration in Chungbuk Province.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as performed with 7 teachers based on the analyzed data.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as liaison teachers in the university annexed science gifted education center and the dormitory based gifted students education center was different from important element of the gifted and qualification of the teacher for gifted educ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ducation parts, education schedule and education methods of two the education centers, which were performed during the semester,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who participated as the liaison teachers. The necessity of the systematic training on the observational skills and class contents were suggested as the essential support system for liaison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gifted education organizations operating styles, the activities of liaison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gifted education emphasizes the long term actual guide experience at the education field for the gifted.

**keywords** : liaison teacher, pre-service teacher, giftedness, qualification of the teacher for the gifted education, gifted education center

### I. 서론

영재는 일반학생과 달리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 또한, 학습에 대한 정서적인 지적 반응 강도가 매우 높으며, 추상적이고 도전적이며 어려운 내용을 선호하는 등 그 요구가 매우 독특하다. 영재는 학습에 대한 요구 수준이 일반 아동과는 다르므로 일반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영재교육과정은 영재를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영재의 특성적 요구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박경희, 2005). 이러한 영재의 지적인 요구와 정서적인 특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교사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Hansen, Feldhusen, 1994). 즉,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과 지

\*교신저자 : 박종욱(parkcata@cje.ac.kr)

\*2014년 6월 13일 접수, 2014년 8월 19일 수정원고 접수, 2014년 8월 20일 채택

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성취동기와 프로그램 개발 능력에서 일반 교사보다 뛰어나야 한다 (Stroy, 1985). Lewis(1982)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란 ‘그들을 자식같이 대한다’라고 보고했다. 영재를 자식같이 대한다는 것은 영재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랜 기간 영재와 함께 생활하는 경험과 이해로부터 영재의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영재 교사 연수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이나 특성의 이해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최선영, 2007). 많은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현장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 및 실제 수업에 대한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심규철, 김현섭, 2006; 정현철 등, 2006; 여상인, 진현숙, 2012). 또한,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실제적 내용을 중점으로 하여 영재교육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angel, Parnin(2008)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 결과 전반적인 전문성 발달뿐만 아니라 영재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영재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 강화된다. 특히 짧은 기간의 강연과 워크숍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교실 현장의 훈련과 영재와 함께하는 경험이 강조되고 있다(신명경, 박종욱, 정병훈, 2005).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은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Lederman, Gess-Newsome, Latz, 1994)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실제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영방식이 다른 영재교육 기관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원의 운영방식을 재조명하고 영재교육을 위한 예비교사 프로그램으로서의 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C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중 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만 포함하는 극단적 사례 표집을 이용하였다. 2010~2011년 C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같은 지역의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기숙형 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에게 1차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설문문에 응답한 총 74명을 본 연구의 실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 보조교사의 소속 기관,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 2. 보조교사 제도 및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기숙형 영재교육원에서는 개설 초기부터 관찰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여 정량화된 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조교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개채용을 통해 학부재학생 중 우수한 보조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그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학생들을 관찰, 관리, 평가하여 끝

표 1. 연구 대상 보조교사 인적사항

구분	계	영재교육원			보조교사 경력			
		대학부설	기숙형	모두 경험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
인원수	74	37	33	4	11	46	14	3
(%)	(100)	(50.0)	(44.6)	(5.4)	(14.9)	(62.2)	(18.9)	(4.0)

표 2. 보조교사의 역할

역할	구체적인 내용
수업 관찰	· 관찰평가 보고서 작성, 학생별 행동 특성 누적 기록 · 분기별 담당 보조교사 순환 배치를 통한 주관적 관찰의 극대화 · 담당 보조교사의 종합적 의견을 재선발 심의에 반영
수업 준비	· 수업자료 준비, 학생 수업준비 지도, 수업환경 관리
학생 관리	· 안전 지도, 출결 관리, 교우 관계 지도

임없이 자기 계발에 노력하는 영재를 발굴하고 학생의 지적, 심리적 변화 과정을 지속해서 추적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영재교육원의 운영 현황을 비교한 <표 3>을 살펴보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중등 과정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였고 탐구 중심의 주말교육과정을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통합하여 반을 구성하고, 1박 2일 동안 지식 및 탐구 위주의 수업을 여러 개 병행하여 운영한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주로 대학교수와 현장 교사가 수업하며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현장 교사가 맡아 수업하고 있다.

### 3. 설문 자료 개발 및 분석

보조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김정숙(2004), 배진성(2010), 신병경, 박종욱, 정병훈(2005), 이충원(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영재교육 전문가 2명, 석사 과정 2명으로부터 설문 문항 내용의 적합도 및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는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과거에 보조교사 경험을 하였던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였고 중복되거나 응답률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여 수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설문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설문 요령을 자세히 설명한 후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회수한 설문지는 문항별로 점수화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영재교육 기관별로 차이를 분석하

표 3. 영재교육원의 운영 현황 비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기숙형 영재교육원
교육 목표	· 창의적 영재 육성	· 창의적 영재 육성 ·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
분야 및 대상	· 초등수학, 초등과학, 중등수학, 중등물리, 중등화학, 중등생물, 중등지구과학, 중등정보 · 초등 6학년, 중등 2학년 대상	· 초등수학, 초등과학, 중등수학, 중등과학 · 초등 6학년, 중등 2학년 대상
교육 일정	· 학기 중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3시간 운영 · 방학 중 3박 4일(여름), 5박 6일(겨울) 집중교육	· 학기 중 토요일 15시~일요일 16시(1박 2일) · 방학 중 5박 6일(여름, 겨울) 집중교육
방법	·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	· 탐구 및 지식 중심의 프로그램 병행
강사	· 대학교수 또는 현장 교사	· 현장 교사
보조교사	· 보조교사 제도 도입 시기: 1998년 · 1인당 담당 학생 수: 5~6명	· 보조교사 제도 도입 시기: 2009년 · 1인당 담당 학생 수: 10명

표 4. 설문지 문항별 주요 내용

영역	구체적 내용	문항 형태
일반적 특성	· 성명, 성별, 연락처, 심화교육전공 · 영재교육원, 보조교사 경력	단답형
보조교사	· 보조교사 활동의 만족도 · 보조교사 활동의 어려운 점 · 보조교사 제도에 필요한 지원	리커트척도 서술형 서술형
영재성	· 영재성의 요소 · 영재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 · 관찰추천 선발 방식에 대한 인식	선다형 선다형 리커트척도
영재교육 담당 교사	·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 · 보조교사 활동을 통한 전문성 신장 · 보조교사의 영재교육 관심도	선다형 리커트척도 리커트척도

기 위해 교차분석( $\chi^2$  검증), 독립표본 t 검증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는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4. 면담 설계 및 분석

설문 조사 결과 두 영재기관 소속 보조교사들의 인식에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 결과와 보조교사 2명의 예비 면담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소속 영재교육기관과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양상에 따라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 보조교사의 정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1차 설문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2차 면담 질문지를 개발하였

다. 면담 질문지는 영재교육 전문가 2명, 석사 과정 2명으로부터 내용의 적합도 및 내용의 타당도를 점검받은 후 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사전 인터뷰를 하여 전사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질문 내용 중 부족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보강하여 면담 설계 항목 및 질문 내용을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설계 항목 및 질문 내용은 <표 6>에 정리하였다.

심층면담은 2011년 11월에서 2011년 12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고, 질문자와 답변자가 1:1 상황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50-130분가량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나누었던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면담 내용은 모두 전사한 후 자료 분석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분석

표 5. 면담 참여 보조교사

그룹 코드	구분	구체적 특징	수(%)	면담참여 (익명코드)
A	소속 영재교육기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37(50.0)	1(A1)
		기숙형 영재교육원	33(44.6)	1(A2)
		두 기관 모두	4(5.4)	3(A3-1,A3-2,A3-3)
B	보조교사 활동 후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있다	긍정적 39(52.71)	1(B1)
			부정적 20(27.0)	1(B2)
		없다	15(20.3)	불참

표 6. 면담 설계 항목 및 질문 내용

범주	핵심질문
영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보조교사 역할 요인 중 영재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영재교육 담당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보조교사 활동이 교육현장에 나가서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되었을 때 전문성 신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담당 학급에 영재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거나 교육현장에서 영재를 가르칠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li> <li>◎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이나 영재교육 내용 분야인 자연과학, 수학, 정보 관련 이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까?</li> </ul>
보조교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교사 활동에 대해 특별히 만족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li> <li>◎ 보조교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li> <li>◎ 보조교사 제도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li> <li>◎ 영재교육을 맡게 될 예비교사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입니까?</li> </ul>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E-mail이나 전화를 이용해 보완을 하였다. 면담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된 일련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면담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의 신빙성을 위하여 구성원 간 검토와 동료의 검토를 활용한 연구자 삼각측정법이 이용되었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영재성에 대한 인식 비교

##### 1) 기관별 영재성에 대한 인식 비교

영재교육 기관별로 보조교사의 영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7). 분석 결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성의 요소로 창의적 사고력(51.4%)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 외에도 특정 분야의 타고난 재능(27%), 지적 호기심(10.8%) 순으로 나타

났다. 반면,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성의 요소로 창의적 사고력(36.4%) 외에 지적 호기심(18.2%), 특정 분야의 타고난 재능(18.2%), 과제 집착력(15.2%)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특징 외에 정의적 측면 역시 영재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5$ ).

영재교육 기관별로 영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한 결과, 영재교육 기관의 교육 분야, 교육 일정, 교육 방법 등의 운영 방식에 따라 영재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1>에 제시하였다. A3-3 보조교사의 응답사례를 살펴보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주말 교육과정은 3시간으로 운영되어 집중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지만, 기숙형 영재교육원 일반 과정은 1박 2일로 운영 시간이 길어 학습태도가 바른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A3-1 보조교사는 반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영역별로 분리하여 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학생이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어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표 7. 영재성의 요소에 대한 인식

N(%)

응답유형	보조교사의 영재교육원			전체	χ <sup>2</sup>
	대학부설	기숙형	모두 경험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0(0.0)	3(9.1)	1(25.0)	4(5.4)	
학교 성적	0(0.0)	0(0.0)	0(0.0)	0(0.0)	
문제해결력	4(10.8)	1(3.0)	0(0.0)	5(6.8)	
과제집착력	0(0.0)	5(15.2)	0(0.0)	5(6.8)	19.075*
특정 분야의 타고난 재능	10(27.0)	6(18.2)	2(50.0)	18(24.3)	df=10
창의적 사고력	19(51.4)	12(36.4)	0(0.0)	31(41.9)	p=.039
지적 호기심	4(10.8)	6(18.2)	1(25.0)	11(14.9)	
리더십	0(0.0)	0(0.0)	0(0.0)	0(0.0)	
합계	37(100.0)	33(100.0)	4(100.0)	74(100.0)	

\*p <.05, \*\*p <.01, \*\*\*p <.001

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통합하여 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식이 방대하여 모든 과목의 과제를 쉽게 해결하고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이 영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업 방식에 따라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A3-2 보조교사의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수업은 주로 학습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탐구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탐구를 다양하게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숙형 영재교육원 수업은 탐구 위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중등 과정 중 몇몇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활동이 끝나면 학습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정답을 정확히 제시하는 학생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추론된다.

<응답사례 1>

A3-3: 대학부설에서는 3시간만 집중하고 가면 되니까 애들이 반짝반짝해요. 기숙형에서는 1박 2일이니까 수업이 계속 있어요. 정말 피곤한 스케줄인데도 끝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A3-1: 대학부설은 중등부터 화학이면 화학만, 컴퓨터는 컴퓨터만 해서 특정 분야에서 애들이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어 지식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력. 기숙형은 과학반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컴퓨터, 과학 4과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잘하는 애가 영재로 생각돼요.

A3-2: 대학부설은 거의 실험 위주니까 이 실험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왜 그렇게 생각해? 기숙형 일부 중등과정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식으로 수업했어요. 오늘 이런 실험을 하겠어요. 실험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 발표해볼까요? 이런 결과는 실생활에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오늘 수업 마치겠어요. 현직 교사들이 해서 더 그런가 도입 전개 정리, 애들과 같이 정답 적고 마치겠어요. 그런 수업이 많았죠.

2) 영재성 인식에 영향을 준 보조교사의 역할

보조교사는 수업 관찰 역할을 통해 영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가 수업 관찰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영재교육 기관별로 보조교사의 수업 관찰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2>에 제시하였다. A3-2 보조교사

의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수업 준비를 돕고 수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보조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1박 2일 동안 학생의 생활 및 학습면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를 ‘관찰자’라 한다면,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담임선생님’에 비유할 수 있다.

<응답사례 2>

A3-2: 대학부설에서는 하는 역할이 진짜 애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탐구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하니까 활동을 유심히 봐야 해요. 그런데 기숙형에서는 1박 2일을 저희가 모든 걸 다 해야 해요. 식사 지도도 해야 하고 밤에 잠잘 때도 해야 하고 깨우기도 해야 하고 생활 모든 걸 하니까 관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학생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숙형에서는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둘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와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의 학생을 관찰기록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3>에 제시하였다. A3-1 보조교사 응답사례를 살펴보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수업 상황에서의 학생의 발문과 행동을 삽입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관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반면,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전체적인 학생 관리가 중요하므로 학생의 학습 및 생활 태도 측면까지 관찰하고 있었다.

<응답사례 3>

A3-1: 발표했는데 이런 대화를 전사하듯이 다 적어요. 행동을 보였을 때도. 애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 이런 기구를 썼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기숙형에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과제를 잘했다. 오늘 많이 즐겼다. 정답을 맞혔다. 애는 정말 똑똑한데 너무 말을 안 들어, 교구 가지고 활동하다 뒷정리를 안 하면 입잡아요. 편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 말 안 듣는 애들도 쓰고 좋지 않았

던 인상이 머릿속에 남으면 쓰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재교육 기관별로 보조교사가 하는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숙형 영재교육원 학생 중에는 앞으로 특목고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많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보조교사의 평가 결과를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4>에 제시하였다. A3-1, A3-3 보조교사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기숙형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보조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해 크게 의식을 하며 좋은 점수를 받아 재선발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수업 활동에 부담감을 가지며 보조교사가 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기숙형 영재교육원으로 학부모가 자주 찾아와서 자녀의 평가 결과에 관심을 두고 관찰기록지를 직접 읽어보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영재교육원 측에서도 보조교사가 쓰는 학생별 관찰기록지의 내용에 신경을 쓴다고 답하였다.

<응답사례 4>

A3-1: 기숙형 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평가에 들어가요? 저 잘 써주세요. 특목고 가야 해요.’라고 물어봐요. 대학부설에서 저희는 뒤에서 준비물 챙기고 관찰하는 사람인데 기숙형에서는 달라요. 강사는 그냥 강의만 하고 저희가 마치 담임선생님 같아요. 애들이 뭐든지 저희한테 허락받아요.

A3-3: 엄마들이 관심이 많고 교무실로 많이 찾아오세요. 대학부설에서는 거의 밖에 계시더라고요. 기숙형에서는 학년 말에 특히 많이 오셔서 관찰평가 했던 거 프린트해서 가져가세요.

학교 현장의 담임교사는 모범적인 학생을 영재로 인식하여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협조적인 학생을 영재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김언주, 2001)는 것이 관찰 추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많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의적인 면에 의존하여 학생

을 평가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영재의 행동 특성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경험을 위한 연수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찰 도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영재교육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조교사의 역할에 따라 영재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달라지므로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특징을 통합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는 영재학생 행동 관찰시 인지적 특성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의적, 사회적 특징 등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영재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 비교**

**1)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 기관별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대한 보조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56.8%)를 중요시하였으며,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39.4%)을 강조하였다( $p < .001$ ). 또한, 두 기관 공통으로 영재교육 담당 교사에게 학문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영재교육 기관별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학생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5>에 제시하였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A3-1 보조교사의 응답사례를 살펴보면,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영재성이 있을 경우 영재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해주고 탐구심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도교수가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시간을 주면 보조교사가 영재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학생을 탐구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데 영재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생과 소통이 단절되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인 B1은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열정을 갖고 탐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 준비를 해오면 학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중력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교사가 지식 위주의 강의식으로 수업하면 학생이 지루해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사례 5>

A3-1: 그런 생각도 있었구나, 같이 탐구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하려는 욕구가 오르거든요. 같이 관심을 두고 교사가 참여하면 애들이 생각을 더 하더라고요. 대학부설 교수님들이 탐구주제를 던져주시면 보조교사들이 애들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영재의 심리를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심리

**표 8.**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N(%)

응답유형	보조교사의 영재교육원			전체	$\chi^2$
	대학부설	기숙형	모두 경험		
인성 및 성실성	0(0.0)	0(0.0)	1(25.0)	1(1.4)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21(56.8)	9(27.3)	2(50.0)	32(43.2)	27.006***
학문적 전문성	11(29.7)	11(33.3)	1(25.0)	23(31.1)	df=6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	5(13.5)	13(39.4)	0(0.0)	18(24.3)	$p=.000$
합계	37(100.0)	33(100.0)	4(100.0)	74(100.0)	

\* $p < .05$ , \*\* $p < .01$ , \*\*\* $p < .001$

를 잘 알아야지 애들을 탐구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게 자꾸 단절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B1: 과학고 선생님들은 보통 퇴근 시간이 12시예요.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산을 200페이지를 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세요. 반면, 일부 교사는 원리를 말로 푸는 게 많고 강의에 비중이 큰 편입니다. 프로그램이 재미있으면 애들이 해요. 귀찮고 이런 아이들도. 그런데 프로그램이 강의식이고 지루하고 그러면 하지를 않아요. 옆드려서 자고.

또한, 대다수 보조교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에 필요한 자질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탐구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6>에 제시하였다. B1 보조교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수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녀야 하며,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충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여 단계별로 쉽게 가르치며 학생이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B2 보조교사의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영재교육 담당 교사는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모방하거나 상위 교육과정을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인식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을 토대로 바람직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응답사례 6>

B1: 과학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학 박사예요.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세요. 주변의 사물을 가지고 탐구를 해요. 본인도 발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오히려 박사 수준의 선생님께서 훨씬 쉽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교수법 자체도 계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가르쳐야 하고 다음에 뭘 가르쳐야 할지

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열려 있어요.

B2: 우리 반에서 선생님은 다른데도 같은 내용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제목만 다르고 활동이 똑같았어요. 선생님 간의 사전 합의가 안 되어 있고 선생님들이 편하자고 어디서 영재교육 내용을 퍼온 것 같았어요.

2) 보조교사 활동에 대한 인식

보조교사 활동이 추후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7>에 제시하였다. A3-1 보조교사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교사를 통해 학생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졌음을 제시하였다. A2 보조교사는 학기별 교차관찰을 통해 서로 관찰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보조교사의 관찰 관점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응답사례 7>

A3-1: 영재를 바라보는 관점, 학생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세 문제가 주어졌는데, 한 문제만 풀더라도 한 문제를 정말 다른 애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풀면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거죠.

A2: 1년 동안 한 학기에는 내가 10명, 다음 학기에는 뒤바뀌어서 나머지 10명을 관찰해요. 보조교사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차관찰을 한 후에는 굉장히 활발한 토의가 진행돼요. 단순히 학생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애를 봤을 때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 근거와 관점을 가지고 관찰한 학생을 이야기하고 이 학생이 조금 더 우수하다 등의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둘째, 보조교사 경험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영재교육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8>에 제시하였다. B1 보조교사의 응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해야 할지를 정하게 되었고 영재교육 관련 내용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축적한 후에 영재교육을 맡아서 지도해야겠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응답사례 8>

B1: 이러한 교육이 있고 앞으로 내가 영재교육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수업해야 할지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 연수라든지 대학원만으로는 다소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연대에서 석사를 하던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3) 보조교사의 영재교육 관심도

영재교육 관심도의 설문 분석 결과, 대학부설 과학교육원 보조교사(M=3.98)가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M=3.64)보다 높게 나타났다( $p < .01$ ). 이와 관련한 보조교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영재교육원에는 학부모의 권유로 입학한 학생이 많았으며, 특히 기숙형 영재교육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1박 2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관찰한 보조교사들은 영재교육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 오히려 영재교육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9>에 제시하였다. A3-1 보조교사 응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영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B1 보조교사도 대다수 학생이 학부모에 의해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본인이 영재라는 것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적인 지도 경험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형성하는 지식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오필석 등(200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교육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수학 및 과학 등의 영재교육 내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즉 보조교사 활동과 같은 실제적 교육 경험을 통해 장차 교육 현장에서의 영재교육 실천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응답사례 9>

A3-1: 영재는 공부 잘하는 애로 생각되니까 그런 식으로 학부모님이 자기 애가 분명히 영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애는 영재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니까. 영재교육이 흐려지잖아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B1: 1박 2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 여기 왜 왔어? 대부분 엄마라고 답해요. 애들도 자기가 영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지쳐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3. 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보조교사 활동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보조교사들은 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교육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조교사 활동에 보조교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보조교사 활동의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계	만족도
대학부설	0	0	13	20	4	37	3.76
기숙형	0	0	14	16	3	33	3.67
모두 경험	0	0	3	1	0	4	3.25
합계	0	0	30	37	7	74	3.56

전체적인 보조교사 활동의 만족도는 3.56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교사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많은 예비교사가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영재교육을 직접 접해보면서 학생의 경험을 강조한 영재교육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며 영재의 역량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영재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10>에 제시하였다. B1 보조교사는 본인이 보조교사를 하면 할수록 영재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으며 올바른 영재교육의 수업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부터 출발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1 보조교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통 수준이라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응답사례 10>

- B1: 보조교사를 오래 하고 싶은 게 돈보다 저도 영재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영재교육이 좀 어려워요. 저도 2년 들으니깐 조금 알겠어요.
- A1: 학교에서는 서른 명 가까운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수준별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아이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인 것 같아요.

둘째, 보조교사 활동의 만족도는 보조교사의 자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11>에 제시하였다. A1 보조교사는 보조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

<응답사례 11>

- A1: 심화 때 정말 바쁜데도 관참은 보조교사는 미리 다 써놔요. 그런데 몇 명은 몰아서 막 쓰고 그러거든요. 과학과 영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나 열정 같은 것을 가진 예비교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조교사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2) 보조교사 활동의 어려운 점

보조교사 활동의 어려운 점을 알아본 결과, 대다수 보조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 관찰을 어려워하였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며, 보조교사의 담당 학생수가 매우 많아 심도 있는 관찰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보조교사가 많은 학생을 관찰해야 하므로 특정 학생에게 편중하여 관찰하기 쉬우며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표현하지 않는 소극적인 학생이나 비슷한 수준의 평범한 학생들을 관찰할 때 별다른 특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12>에 제시하였다. A2 보조교사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교사가 수업내용을 모르면 학생이 잘하는 것인지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관찰일지를 대충 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1 보조교사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학생은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보조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조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응답사례 12>

- A2: 저희도 그날 유인물을 받으니까 애들이 돌발질문을 하면 과학적인 전문 지식일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생각해보는 거야'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 A1: 쓸 게 없는 아이. 그 아이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면 그다음에서야 푸는 것 같아서 이런 아이를 평가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3) 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지원

보조교사 제도에 필요한 지원을 알아본 결과, 대다수 보조교사는 관찰방법 및 수업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또한, 보조교사가 영재 수업 내용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기회가 필요하다. 보조교사가 수업 내

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학생 활동에 대한 관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조교사를 조력자로 인식하여 영재를 하나의 객체로서 교감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응답사례 13>에 제시하였다. 특수 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B1 보조교사는 단순히 학생을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영재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고 영재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보조교사 제도에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조교사 활동에 예비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 봉사시간 등의 유인책 보다는 영재교육의 본질 및 영재성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경험이 제공되는 연수의 기회가 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응답사례 13>

B1: 보조교사가 조력자 개념으로 가야 해요.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과정에 참여해야지 마냥 방임하는 형태로 두면 사실 교대생이 할 필요도 없고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인문학이 답인 것 같습니다. 대상을 관찰할 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수업 관찰을 할 때도 단순히 관찰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관찰대상이 아니라 같이 교감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운영방식이 다른 영재교육 기관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두 기관의 영재교육 운영 및 보조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영재성의 요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 영재교육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창의적 사고력을 영재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정의적 측면을 영재의 특성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두 영재교육원 간의 교육 분야, 교육 일정, 교육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중등과정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탐구 중심의 주말교육과정을 3시간으로 전개하면서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때 보조교사는 ‘관찰자’로서 학생의 인지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반면 기숙형 영재교육원은 통합하여 반을 구성하고 1박 2일 동안 지식 및 탐구 위주의 수업을 여러 개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보조교사는 ‘담임선생님’으로서 학생의 정의적인 측면을 중요시해 학생의 생활 태도적인 면까지 관찰 기록한다. 또한, 기숙형 영재교육원에는 앞으로 특목고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 많으며 보조교사의 평가 결과를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관한 설문 결과도 영재교육 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로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고,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보조교사는 영재교육 담당 교사에 필요한 자질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강조하였다. 보조교사 활동이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기숙형 영재교육원 보조교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어 이 때문에 영재교육 관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 수업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보조교사 활동의 만족도는 보조교사의 자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다수 보조교사는 관찰방법 및 수업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수와 보조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영재교육 기관의 운영방식이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재교육 현장에서 장기간의 실제적 지도 경험을 가진 보조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기관별 장단점을 분석한 후 영재교육 기관의 운영방식을 고찰해보고 영재교육을 위한 예비교사의 훈련 방법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정숙 (2004). 초등 영재교육에 관한 담당교사의 인식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연주 (2001). 영재의 판별과 선발. 영재교육연구, 11(2), 1-19.
- 박경희 (2005). 과학영재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교사의 인식 분석. 교육과정연구, 23(3), 159-185.
- 배진성(2010). 단위학교별 영재학급에 의한 영재교육 확대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신명경, 박종욱, 정병훈 (2005). Proposing a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the Gifted Education. 한국지구과학학회지, 26(4), 347-357.
- 심규철, 김현섭 (2006). 지역 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4(4), 479-484.
- 여상인, 진현숙 (2012). 과학영재 교수방법에 대한 초등과학 영재교사의 지식에 대한 사례연구. 과학교육연구지, 36(1), 94-105.
- 오필석, 이선경, 이경호, 김찬중, 김희백 (2008). 예비 과학 교사들의 고등학교 과학반 지도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6), 546-564.
- 이충원 (2004). 정규 대학원 과정과 단기 직무연수 과정 이수에 의해 양성된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 지식수준과 업무 준비도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현철, 서혜애, 김미숙, 강민희 (2006).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시행령(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최선영 (2007). 초등과학 영재학급 담당 교사의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초등과학교육학회지, 26(3), 252-259.
- Bangel, N. J. and Parnin, S. T. (2008).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 a Gifted Education Training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WERA Annual Meeting, Westin Great Southern Hotel, Columbus, Ohio, Oct. 15, 2008.
- Hansen, J. B., & Feldhusen, J. F. (1994). Comparison of trained and untrained teacher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3), 115-121.
- Lederman, N. G., Gess-Newsome, J., & Latz, M. S. (1994).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 conception of subject matter and pedagog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1(2), 129-146.
- Lewis, J. F. (1982). Bulldozers or chairs? gifted students describe their ideal teacher. Gifted Child Today, 23, 16-19.
- Stroy, C. (1985). Facilitator of learning: A microethnographic study of the teacher of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29(4), 155-159.

##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운영방식이 다른 영재교육 기관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C지역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지원 기숙형 영재교육원의 보조교사 활동에 참여한 예비교사 7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7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연구 결과,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두 영재교육원 간의 교육 분야, 교육 일정, 교육 방법의 차이에 따라 보조교사의 영재성과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다수 보조교사는 주요 역할인 수업 관찰에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며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재교육 현장에서 장기간의 실제적 지도 경험을 가진 보조교사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예비교사 훈련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고 영재교육원의 운영 방향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보조교사, 예비교사, 영재성, 영재교육 담당 교사, 영재교육원